

경기도무형문화재

제60호 야장 보유자

신민병



대장간과 야장(冶匠, 대장장)



대장간은 쇠를 달구어 각종 철물을 만들고 다듬는 곳이다. 옛날에는 마을과 장터마다 대장간이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철물들과 모든 농기구들과 건축관련 손도구들을 제작하고, 다듬어 공급해주는 곳이었다.

조선시대 궁궐 등 중요 건축물의 수리에 사용되는 철물은 현장에서 별도의 대장간(노야소, 爐冶所)을 만들어 공사에 필요한 철물을 제작하였다. 야장은 대장간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나이와 관계없이 실력에 따라 오르며 메질꾼과 풀무꾼, 심부름꾼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였다.

작업도구

- ① 모루 : 철을 망치로 두드려 형태를 만들고자 올려놓는 쇠반침대.
- ② 화덕 : 쇠를 달구는 화로.
- ③ 풀무 : 화덕의 화력을 높이기 위해 바람을 불어넣는 기구.
- ④ 집게 : 달궈진 쇠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용도의 집게들. 용도에 맞게 만들어 쓴다.
- ⑤ 망치 : 두드릴때 필요한 망치. 야장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 쓰며, 다양한 형태가 있음.
- ⑥ 물통 : 담금질할 때 사용하는 물을 담아놓는 통.



▼ 모루



▼ 망치



▼ 화덕/집게/풀무



▼ 물통

보유자 신인영



입문 및 대장간 역사

신인영 야장은 1966년 입문하여 <안성대장간>을 운영중이던 4대 야장 고모부 강석봉으로부터 기술을 사사했다. 해방전후 <안성대장간>을 이끌던 야장 김동숙은 그의 할아버지 김인용과 아버지 김영제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아 3대째 운영 중이었다.

당시 안성시내 십 여 개의 대장간 중 깊은 역사, 높은 기술력, 큰 규모로 유명했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안성대장간에 물건을 구하러 왔다가 구하지 못하면 다른 대장간에서 구입하지 않고, 근처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 물건을 나오길 기다려 맞춰가는 일도 흔한 풍경이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안성대장간>의 높은 명성을 듣고 대장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기에 ‘학교’라고 불렀다고 한다.

<계보도>



그러나 대장기술 습득에 오랜 숙련기간이 필요하고, 가족 외에 기술전수를 꺼리는 풍토로 인해 대부분 대장일을 포기하고 떠나거나, 어깨너머로 배운 낮은 수준으로 인근에 가게를 차리기 일쑤였으며, 마차공장으로 이직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3대 야장 김동숙 역시 풍토에 따라 친인척에게 기술을 전수했으며 그 중
처조카 강석봉을 거쳐 현재 신인영 야장만이 유일하게 <안성대장간>의 계보
를 잇고 있다.

김동숙은 강석봉을 위해 결혼시기에 맞춰 인근 봉산동에 <안성대장간>을
내주었으며, 강석봉이 평소 쓰던 도구와 메질꾼을 그대로 데려가도록 했다.

강석봉 역시 자식에게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고 처조카인 신인영에게
1966년부터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했으며, 빠른 습득력과 탁월한 감각으로
1969년부터 정식 야장으로 등극, 안성대장간의 5대 야장으로서 50년 넘게
한길을 걸어왔다.

2. 보유기능

- (1) 풀무질 : 달구는 쇠와 연장에 따라 바람의 강약을 조절하여야 하며, 불과 쇠의 성질을 충분히 이해해야하는 숙련이 요구된다.
- (2) 절단 : 시우쇠를 제작물품에 따라 필요한 크기로 재고 자른다. 재료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절단한다.
- (3) 달굼질 : 쇠를 불에 넣고 바람을 불어 달구는 과정으로서, 쇠의 강도에 따라 달구는 시간과 속도가 달라진다.
- (4) 집게질 : 쇠가 적당히 달구어졌을 때 화덕에서 집게로 꺼내어 정확한 메질을 할 수 있도록 쇠를 모루 위에 올려 고정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작업과정이다.
- (5) 메질 : 다듬질이라고도 하며, 망치질로 원하는 모양을 만든다. 메질꾼 두세 명이 번갈아가며 대장이 지시한대로 메질하며, 야장의 메질은 다른 메질꾼들이 메질할 곳을 지시해주는 약속된 작업행위이며, 순서와 리듬, 메질의 강도를 조절하며 진행한다.
- (6) 접쇠 : 고온에서의 메질로 서로 접합되는 철 특유의 성질을 응용, 연철과 강철을 여러 겹으로 접합하여, 연철의 강도를 높이고, 강철의 부러지거나 깨지는 성질을 보완하여, 강하고 탄력있는 물리적 합금철을 생산하는 전통대장기법이다. 제작물품에 따라 접는 횟수가 다르게 적용되며, 높은 강도가 요구되는 병장기와 건축철물 등에 귀하게 사용되었다.
- (7) 갈음질 : 완성된 철물을 숫돌에 갈아 마무리하는 과정(연마)이며, 칼이나 낫 등의 날을 세우는 과정도 갈음질에 포함된다. 날을 세우는 기술은 야장에 있어서 담금질과 함께 고난도의 기술로 숙련된 정도에 대한 척도가 된다.
- (8) 담금질 : 낫, 칼과 같이 날이 있는 물건을 만들거나, 강도가 필요한 철물을 제작할 경우 적절한 온도로 쇠를 달구어 물에 담가 급속히 식히는 방법으로 쇠를 강하게 만들어 휘거나 닳지 않는 고품질의 철물로 완성하는 마무리하는 기법이다. 담금질은 오랜 경험으로만 습득할 수 있는 특별한 기법이기에 대장으로서 평가되는 기술력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신인영 야장은 일반적인 물 담금질 외에 기름, 흙, 모래 등 다양한 담금질 기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작 도구의 특성에 맞게 최적의 담금질을 할 수 있다.
- (9) 기타 : 자루 맞추기, 땀기 감싸기 등의 마무리 손질로 완성된다.



풀무질



달금질



메질, 집게질



다듬질



갈음질



담금질

3. 제작물품

(1) 건축철물

- 문이나 창문 등에 달리는 문고리와 배목
- 문이 회전되는 곳에 달린 돌쩌귀
- 문의 겉표면에 달리는 국화꽃 모양의 국화정
- 창호를 들어올려 고정시키는 걸쇠,
- 맞배지붕·팔작지붕의 측면에 붙는 지네철 또는 깍쇠 등
- 궁궐·사찰 등 대규모 건축물의 목재 연결용의 다양한 못
(머리가 없는 무두정, 곡정, 원두정, 와정, 장쇄, 철정, 장정 등)
- 감잡이쇠, 귀잡이쇠 등

(2) 농기구

- 국내 40여개 지역의 다양한 호미 제작
호미는 각 지역별 토양과 작물에 따라 사용되는 호미의 모양이 다르게 제작 사용되었으며, 40여개 지역의 차별화된 호미 제작
- 호미, 낫, 쟁기, 자귀, 작살, 쇠보습, 자귀, 조피낫, 고물개, 찰흙칼, 소등쇠, 소발굽, 말발굽, 깎칼, 기외망치, 손작두, 발작두, 벽채, 벽채호미, 통나무 갈고리, 통나무 집게, 살포, 가마니 바늘, 조선가위, 조각도, 소죽 갈고리, 삼발이, 도레, 끌, 한지칼, 가마니바늘, 갈고리, 쇠스랑, 악괘이, 버들낫, 소발톱낫, 선평이, 사냥용 차우, 가래 등

(3) 생활도구

- 부엌칼, 쪽가위, 부절가락, 불손, 불삽, 멧돌중쇠, 조선가위, 대문지두리, 끌, 물통고리, 한지칼, 쇠주걱, 송곳, 집게, 등

(4) 석공/목공연장 : 툭, 정, 망치, 대패날 등

(5) 병 장 기 : 조선검, 언월도, 창, 투구 등

(6) 해안도구 : 갈고리, 배걸이, 호미 등



감잡이쇠



귀잡이쇠



국화정



돌쩌귀



배목, 문고리



띠쇠



쟁기보습



가위



맷돌중쇠



도끼, 도끼자귀



문저귀



5발 쇠스랑

4. 보유기능의 특징

1) 흙을 사용한 전통접쇠 기술

접쇠란 강철과 연철 등 탄소량의 차이가 있는 철을 여러겹으로 붙여 강하면서도 탄력있는 우수한 철을 만드는 전통대장기법으로서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 제작물 품에 따라 접는 횟수가 다르며 주로 병장기와 건축철물 등에 쓰였다.

접쇠에 이용되는 흙은 산화피막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고난도 작업이라서 요즘에는 좀더 쉬운 봉사(화학재료)를 이용한다. 신인영 야장 입문시 절에도 대부분 봉사를 이용했는데 일부 야장은 일꾼들도 모르게 봉사로 접쇠를 해놓고 흙물을 문혀서 속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 흙을 이용한 전통접쇠를 만들어 물품을 제작할수 있는 유일한 야장으로 알려져 있다.

■ 접쇠방식

접쇠방식은 야장마다 다른데 갈라짐을 방지하는 고난도 방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철을 다근자로 접은 후 그 사이에 강철을 끼워 붙이고 접쇠된 부분을 다시 늘여 또 다근자로 접고 강철을 끼워 붙이기를 반복한다. 이때 다근자의 막힌 쪽을 건축 보강용 못 제작시 뽕족한 부분으로 만들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갈라짐을 방지할 수 있다.

2) 전통기법의 다양성 보유

야장 기술력의 척도는 담금질 즉, 열처리 기술이다. 가장 상위 기술에 속하여 도검, 주방칼 등의 날을 세울때 경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물 담금질 말고도 기름, 흙, 모래 등 제작물품에 따라 최적의 열처리를 할 수 있다.



1. 1번 접은 연철사이에 강철을 끼운다.



2. 강철과 연철을 붙인 후 편편하게 만든다.



3. 모서리에 꺾어 디금자로 2번째 접는다.



4. 강철을 끼운다.



5. 그대로 붙인다



6. 다시 늘이고 강철 끼워 붙이기 반복한다.



7. 접쇠된 부분만 자른다.



8. 각 면을 고루 메질하여 잘 붙게 한다.



9. 필요한 모양의 철을 완성한다.

3) 청동칼 제작

단조로 만든 주방칼은 우수한 절삭력과 내구성으로 쉽게 무뎠지지 않기 때문에 실용성이 높아 대장간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 신인영 야장은 실용성 뿐 아니라 디자인과 기능을 첨가한 명품 주방칼을 만들기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 끝에 청동칼 개발에 성공하여 이 분야에 독보적인 장인이 되었다. 청동칼은 황금빛에 가까워서 주방에 놓아두는 것 만으로도 고급스런 분위기를 내고 살균기능까지 갖추어 명품으로서 손색이 없고 희소 가치가 높다.

4) 지역별 농기구 제작

농기구는 같은 쓰임새라도 지역에 따라 생김새와 용도가 조금씩 다른데 지형적 특성에 따라 변형됐기 때문이다. 안성은 예로부터 5일장으로 유명했고, 전국 각지에서 <안성대장간>으로 물건을 주문하러 왔기 때문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비롯 평안남도까지 여러 지역의 전통농기구에 남다른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강원도와 경기북부 지역의 쇠스랑은 3발을 사용하였으며, 충남권 4발, 경기 남부(평택, 오산, 화성 등)는 주로 5발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안성은 5발 사용이 많았다. 쇠스랑의 갈래는 지역의 토질과 연관을 가진다. 강원도와 같이 자갈이 많은 거친 토양의 지역에서는 발을 갈 때는, 쇠스랑의 발이 적은 3발의 쇠스랑이 유용했다.

5) 실전위기에 놓인 제작기술 명맥 유지

안성지역은 예로부터 우경이 매우 발달한 지역으로 소와 관련한 물품제작이 많았는데 소가 잡아당길 수 있는 보가래는 안성에서 특별히 많이 사용되던 물건이었고, 소여물을 자르는 작두, 소발굽, 말발굽 등의 품목도 널리 사용되었다고 한다. 쟁기에 있어서도 보통 소길마만 엮어 사용하던 다른 지역과 달리 철로 만든 소구라(마차, 쟁기를 끌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처음 생산, 판매했을 정도다. 철소구라는 소의 몸집에 따라 날개처럼 펼쳤다 오므릴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았고, 안성5일장을 통해 전국으로 전파되어 사용되었다. 소구라 만드는 기술을 배우러 당시 어렸던 신인영 야장을 찾아 온 타 지역 장인이 많았을 정도로 활발한 제작 품목이었지만, 오늘날 현업에 종사하는 대부분 야장들은 접해보지 못한 농기구이며, 실전위기에 놓인 귀중한 기술이 되었다.

이밖에 목수자귀에 적용하는 목지르기 기술 역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철소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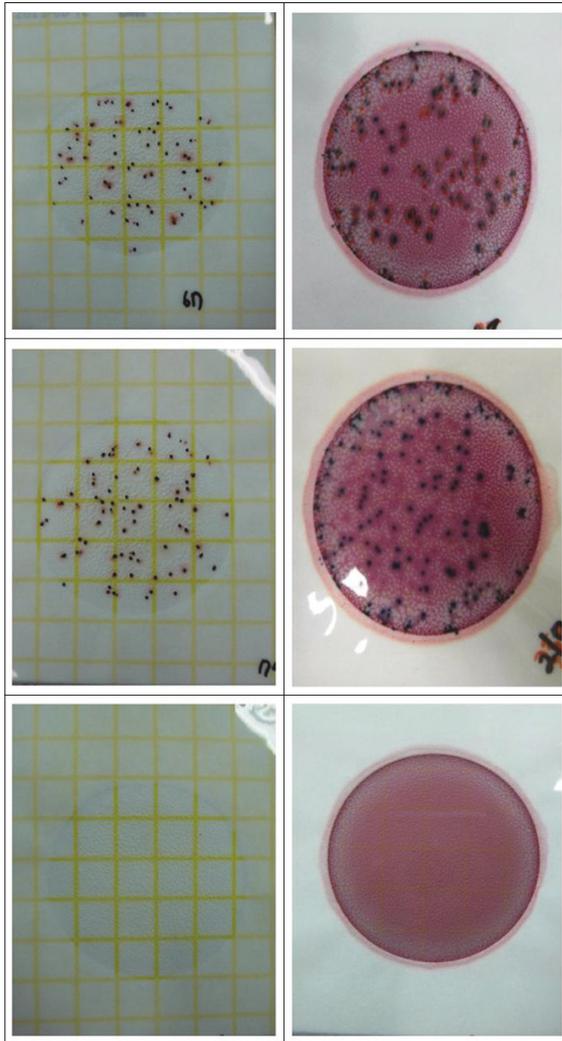


보가래

대표작품



▼ 각종 단조 청동 주방칼



▶ 신인영 단조작품(맨 아래)의 세균검사 비교표



▶ 도검제작

장식용 철공예품 주문 제작 ▶



5. 주요 실적

1) 익산 미륵사지석탑 보수공사, 석장용 연장 제작

대목장, 석장 등 장인들의 연장은 장인의 기술수준이나 공사의 완결성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며 고난도 제작기술에 속하는데 익산 미륵사지석탑 보수공사의 돌가공을 위해 사용하는 정, 야, 고야, 집게 등 전문연장 600여점을 공급하였다.

2) 송례문 복구공사 전통철물 제작, 복원

(1) 전통 접쇠기법으로 송례문 철엽 복원.

'철엽(鐵葉)'이란 대문에 붙이는 물고기 비늘모양의 쇠붙이 장식으로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불화살 등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나무문에 부착한 얇은 철판장식을 말한다. 송례문 화재때 훼손률이 적었으나 문화재복원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1960년대 북구시 쓰인 양철이 그대로 돌수 없어 철엽 41개 중 양철을 제거하고 270개(70%)의 철엽을 전통방식으로 복원하였다.



(2) 송례문 장식철물 제작

송례문 작업 당시 신인영 야장 혼자 접쇠철물을 제작하려면 계획된 완공기간보다 최소 5년 이상 지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제작연대가 같은 경복궁 접쇠철물을 재활용하여 송례문의 엄지기둥, 동자, 둔테, 판문널 띠철과 같은 주요 장식철물을 제작하였다.

(3) 무두정, 곡정, 원두정 등 건축보강재 제작하였다.

(4) 전통대장간 전시용 모루, 물통, 집게 등이 서양식이거나 현대식인 점을 안타깝게 여겨 방문객들에게 올바른 전통문화와 생생한 옛모습을 전달하고자 대대로 물려받은 집게, 망치 등 작업도구와 전통모루, 300년된 나무로 만든 물통 등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무상 전시하였다.

(5) 전통 제철기술의 비밀과 우수함을 밝혀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주요 경력

- 2016.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0호 야장 지정
- 2011. 안성시 향토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
- 2015. 익산 미륵사지석탑 보수참여(석장도구)
- 2009-2013 승례문 복구사업 참여(전통철물)
- 2004. 경기오피미 지정

주소 : 경기도 안성시 가현동 14-6

전화 : 010-2362-4556

담당 : 신미래

메 모

